

2015년 제20회 학위논문발표회

# 서울신학포럼



- ◎ 일시 : 2015년 8월 24일(화) 오전 10:30
- ◎ 장소 : 서울신학대학교 우석기념관 강당
- ◎ 주최 :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 ◎ 후원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장학위원회

## 학위논문발표회

■ 좌 장: 박 영 식 박사

■ 제1발표자: 김 찬 흥 박사

존재론적 신 이해와 영성학적 신 경험:  
(Robert C. Neville과 다석 유명모의 신 이해 비교)

■ 토의

■ 제2발표자: 신 승 범 박사

기독교대학생의 성인애착과 하나님 애착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도 S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 토의

## 약력

■ 김찬흥 박사(조직신학)

고려대학교 철학과(B.A)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미국 Boston University (STM)  
미국 Boston University (Ph.D)  
-현 소속: 하남중앙교회 담임목사  
-박사학위논문: YU YÖNG-MO'S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God and Spirituality.

■ 신승범 박사(기독교교육)

목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B.A)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미국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MACE)  
미국 Biola University, Talbot School of Theology. (Ph.D) in Educational Studies  
-현 소속: 영동중앙교회 교육목사  
-박사학위논문: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al Christian spirituality and parenting styles among evangelical Korean Christian parent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존재론적 신 이해와 영성학적 신 경험  
(Robert C. Neville과 다석 유영모의 신 이해 비교)

- 김찬홍

[이 발표는 2014년 4월에 Boston University에서 통과된 제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체 논문의 부분들을 발췌하거나 요약하는 형식으로 준비된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I 들어가는 말 (신학과 영성학)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매우 다양한 방식과 모습으로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크게 두 가지의 범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나누어 본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이 세계의 모든 존재의 터전 혹은 근거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수학한 Boston University를 포함한 오늘날 대다수 미국 대학 신학부의 관점에서는 전자의 이해는 주로 영성학적인 하나님 이해로, 후자는 조직신학(혹은 구조적 신학)적 하나님 이해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존재론적 혹은 형이상학적 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학이 인격적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고백적 신학들을 학문적 신학의 영역에서 밀어낸 것은 비단 최근에 들어서 일어난 현상만은 아니다.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개인과 공동체의 경험들이 '신학'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되었던 데에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신학을 강조한 중세의 스콜라 철학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흐름을 주도하는데 큰 영향을 준 계몽주의 등의 영향이 컸다.

20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이 철학과 문화 뿐 아니라 세계 사회에 여러 영향을 미치면서 신학도 포스트모던적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나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 보다는 각각의 상황(context)에 뿌리 내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가치들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신학으로 하여금 절대자(the Absolute)에 대한 개인 혹은 특정한 공동체의 구체적인 영적인 경험들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신학계의 경우,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가 결국 영성학(the academic field of Spirituality)의 부흥을 초래하였고,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이고 개별적인 고백과 경험들은, 적어도 학계에서는, 조직신학의 연구 대상이 아닌 영성학의 연구 대상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논문은 존재론적인 하나님 이해에 근거하여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영역으로 진입하기 어려워진 철학적 신학의 한계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거치며 극단적으로 개별화되어 버린 신앙인들의 영적인 하나님 이해 양 극단을 모두 극복하고, 구조적 신학과 영성학의 연결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의 보수적 교단들로부터는 기독교 신학자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한 다석 유영모의 하나님 이해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그의 동아시아의 정신적 사상에 근거한 존재론적 하나님 이해와 역시 동양적 영성 수련에 입각한 실존적인 하나님 이해를 살펴봄으로써 어쩌면 21세기 극단적인 존재론적인 신 이해를 통한 비인격적인 하나님 이해와 극단적인 개별화를 통한 다원주의적 혹은 만유재신론적 하나님 이해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하나님 이해를 향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유명모의 동양 존재론적 신론을, 현재 보스톤 대학(Boston University)의 조직신학 교수이며, 20세기 초반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을 시작으로,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과 과정철학 등과 끊임 없이 소통하며 존재론, 형이상학, 우주론 등에 기초하여 자신의 신학을 발전시켜온 네빌(Robert C. Neville)의 존재론적 신이해와 비교 연구할 것이다.

## II Robert C. Neville의 존재론적 신 이해

네빌은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기독교의 전통적 창조론인 무로부터의(*ex nihilo*) 창조 개념으로 보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해 설명한다. 네빌의 형이상학적 존재론은 이 세계의 창조주인 하나님은 “결정적 존재”(determinate being)일 수 없다고 본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이 세계의 모든 결정적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 관계됨으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창조주가 실재한다면, 그러한 창조주는 “비결정적”(indeterminate)이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피조세계와의 관련 속에서만, 즉 다른 말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으로만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네빌에게 있어 “무로부터의 창조”는 창조주인 하나님이 비결정적인 실재임을 의미한다. 이때의 무(無)는 상대적인 유(有)의 반대 개념, 즉 무언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sup>1)</sup> 이때의 무(無)란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있다’와 ‘없다’의 개념까지도 초월하는, 말하자면 절대적 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비로소 신은 창조주라는 결정적 이름으로 규정되게 된다. 이러한 존재론적 신 이해에 입각하여, 네빌은 하나님을 무(nothingness, 無) 자체로 정의하기에 이른다.<sup>2)</sup> 물론 네빌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의 대한 가장 최근의 정의는 “존재론적 창조 행위”(the ontological creative act)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유의미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이고 그의 궁극적인 절대자의 이해는 절대적 무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리하면, 존재의 터전, 혹은 존재 그 자체로서의 신은 “비결정적”인 무(無)이지만, 창조를 통해 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결정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네빌이 자신의 창조 이론으로 설명해 내려왔던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네빌의 하나님 이해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신앙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네빌에게 있어 창조주의 창조 행위는 완전히 자유로운 것으로서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우연적인 것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창조하시지만, 그 창조에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도 있지 않다라는 공허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네빌의 존재론적 하나님 이해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기도와 예배의 실재성을 부정할 뿐 아니라 초월적 절대자에 대한 신비적 체험에 근거한, 모든 실제적 신앙생활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위험성이 있다.

1) 네빌에게 있어 ‘상대적 무’ 역시도 확정적 존재이다. 확정적 존재는 물질 세계 뿐 아니라, 추상적 개념들 또한 포함하는 것이다.

2) “We cannot say that there is a potentiality in God to create the world apart from creation, because that potentiality would either be determinate (hence created) or vacuous (and different in no way from utter lack of potentiality). […중략…] Apart from creation, God is indistinguishable from nothing.” (Neville, *ATheologyPrimer*,40.)

### III 유영모의 “없이계신 하느님”

유영모는 자신의 어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다.

하느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좀 이상하다. 하느님의 이름은 없다는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어떠한 신이라 말하리까라고 하자 ‘나는 곧 나다’(출 3:14)라고 했다. ‘엘리’니 ‘야훼’니 하지 않았다. 이름 없는 것이 하느님이다. [...중략...] 하느님이란 언제부터 있고 어디에 있다면 하느님이 아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생겨 무슨 이름으로 불려진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다. 상대세계에서는 하나 (一, 절대) 라면 하느님을 말하는 것이다. 유(有)와 무(無)를 다 합친 전체는 하나뿐이다. 하나뿐이라 절대(絕對)이다. 이 전체요 절대인 하나(一)가 하느님이다. 사람들이 유신론이라 무신론이라 떠드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있다 없다가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sup>3)</sup>

이러한 유영모의 하나님 이해는 네빌의 창조주로서의 존재론적 하나님 이해와 상통한다.<sup>4)</sup> 유영모 역시 네빌처럼 하나님을 무(無) 혹은 빔(虛) 으로 정의한다. 물론 이때의 무나 허의 개념은 그가 유불선으로 대표되는 동양적인 절대자 이해에서 빌려온 개념들이다.

유영모는 유교의 태극(太極) 혹은 도교의 도(道) 등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이러한 유영모의 하나님 이해는 그가 하나님을 만물, 즉 세계의 창조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유영모는 하나님을 무극(無極)<sup>5)</sup>과 불교의 *sūnyatā* (空)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해한다. 절대자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나 인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어찌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하나님 이해를 토대로 유영모는 하나님을 “없이계신 하느님”이라 명명한다. 이때의 하나님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 모순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있고 없는 모든 존재들을 초월하는 절대적 무<sup>6)</sup>를 의미한다. 유영모에게 있어 무 혹은 공이란 모든 존재들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모든 존재들이 돌아가야 할 종착지 같은 것이었다.

이처럼 유영모의 하나님 이해는 네빌의 존재론적 하나님 이해와 상통한다. 즉, 유영모가 사용한 도(道), 태극(太極), 기(氣) 등의 동양적 개념들은 네빌의 창조주로서의 ‘결정적’(determinate) 하나님 개념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지며, 유영모의 무극(無極), 공(空), 빈탕한데<sup>7)</sup> 등의 하나님 이해는 네빌에게 있어 존재론적으로 창조 행위 “이전”<sup>8)</sup>의 “비확정적”인 무(nothingness)로서의 신이해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유영모는 네빌과는 달리 공허한(?) 존재론적 하나님 이해에 머무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의 실제적인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3) 유영모, *다석 유영모 어록*, 49-50.

4) 폴 틸리히(Paul Tillich)의 “존재의 터전”(ground of being) 혹은 “존재 그 자체”(Being itself)로서의 신이해도 유영모의 “없이계신하느님”으로서의 신이해와 상통한다. 실제로도 네빌은 자신의 신이해가 틸리히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5) “하느님은 절대요 하나(一)이다.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라 오직 하느님뿐이다. 유무(有無), 생사(生死), 물심(物心), 고금(古今), 자타(自他), 상하(上下), 내외(內外), 선악(善惡), 양부(仰俯)가 모두 상대적이다. 시시비비(是是非非) 따지는 것은 내가 지은 망령이요, 시(是)도 아니고 비(非)도 아니다. 하느님(絕對)을 믿고 만족하면 일체(一切)의 문제가 그치고 만다. 시비의 문제는 철인(哲人)의 경지에 가야 끝이 나고 알고 모르고는 유일신(唯一神)에 가야 넘어서게 된다. 절대(絕對)에 서야 상대(相對)는 끊어진다. 상대에 빠져 헤매지 말고 절대에 깨어나야 한다. 자기가 무지(無知)임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상대지(相對知)가 많아도 절대지(絕對知)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절대요 전체요 하나인 진리(하느님)를 깨치는 것이 가장 급선무(急先務)이다.” (*다석유영모어록*, 64-65.)

6) “아주 빈 절대공(絕對空, 하느님)을 사모한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絕對)의 허공이라야 참(眞, 하느님)이 될 수 있다.” (*다석유영모어록*, 57-58.)

7) 유영모가 *sūnyatā* 대신 자신의 고유 표현으로 사용한 개념.

8) 네빌은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성’도 포함하는 것이기에 창조 행위 “이전” (“before”)에 따옴표를 달아,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존재론적인 순서 (ontological order)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절대적인 무(無)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유영모는 궁신(窮神)의 삶을 살아야한다고 답변한다. 그리고 궁신의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합일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존재론적 신이해가 동양 사상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처럼, 그의 실제적 하나님 경험도 동양적인 영성의 영향을 받았다. 유영모는 우선 유교의 부자유친(父子有親)의 관계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한다.

하나님아버지와 아들은 둘이면서 하나다. 부자불이(父子不二)다. 이것이 부자유친(父子有親)이라는 것이다. 맨 처음이고 참되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그리워함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성(本性)이다. 생각은 그리움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리워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를 사람의 참뜻이라 하여 성의(誠意)라고 한다. 이 뜻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sup>9)</sup>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유영모는 인간 자신에게서 찾았다. 유영모는 인간에게는 거짓 나인 제나(自我)와 참나인 열나(靈我, spiritual self)가 있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영적인 삶, 혹은 영적 훈련이란 제나를 죽이고 열나를 살리는 일이었다. 참된 나이자 신적인 자아인 열나가 온전히 살아날 때, 인간은 하나님과의 합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신비적인 하나님과의 합일로서 동방정교회의 부정신학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고도 보인다.

이처럼 인간 구원의 가능성과 하나님 경험의 가능성을 인간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유영모는 존재론적으로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초월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맺음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 이해와 인간 이해가 그의 신학 전체가 한국 개신교의 주류인 정통적 복음주의에 의해 이단 혹은 다원주의로 낙인찍히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실제로 유영모의 그리스도 이해는 예수가 본래부터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급진적인 생각에서 출발한다. 즉 예수 자신은 다른 인간들과 존재론적으로 전혀 다를 바 없었지만, 그가 자신 안에 있는 신적 본성인 열나를 깨달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합일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독교론에 의하면 모든 신앙인이 영적인 훈련과 금욕 생활 등으로 제나를 죽이고 열나를 살리면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sup>10)</sup> 이러한 유영모의 하나님 이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한국 개신교의 복음주의적 신학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 IV 나오는 말 (신학과 영성학의 경계에서)

존재론적 하나님 이해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존재론적 절대 거리를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신학적 접근이다. 특히나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현재의 한국 개신교의 위기가, 만연한 기복적 신앙 행태와 하나님 뜻의 무분별한 자의적 해석 등에서 초래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는 존재론적 하나님 이해가 가지는 유익성은 분명히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 속으로 들어와 피조 세계에서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의 입장에서 창조주와의 존재론적 거리만을 강조하는 신학은 실질적인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우리 한국 기독교 신학의 모체가 된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신학이 영성학에 깊

9) 다석유영모어록, 59.

10) 유영모는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기 보다는 선생님, 스승으로 인정하고 따랐다. 이러한 그의 기독교론은 폴 틸리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 존재 (essential being) 와 실존적 존재 (existential being) 의 간극과 갈등을 극복한 새로운 존재 (New Being) 으로 설명하며, 하나의 종교적 상징 (religious symbol) 으로 본 입장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은 관심을 보이며 동방정교회의 신비주의 신학 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영모의 신학과 영성은, 비록 그의 신론과 기독교론이 복음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급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하나님 이해가 존재론적 이해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삶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아갔다는 면에서 현대 신학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인다. 우선적으로 그의 존재론적 신이해와 신비적 합일을 강조하는 실천적 영성의 근본이 서양의 신학적 그리고 영석학적 영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동양의 전통적인 절대자에 대한 이해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유영모 사상의 독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오늘날 세계의 종교 흐름 속에서 한국 개신교의 신학과 영성을 분명히 정립해야한다면, 비록 동양적 존재론에 근거하였다 해도, 신학적으로 엄밀한 하나님 이해와 구체적인 영성생활의 관계성을 실존적으로 체득하고 설명하려 했던 유영모의 노력은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신학과 영성이 나아가야 할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김진, *다석 류영모의 종교사상*, 울산대학교출판부, 2012.
- 2 박영호, *다석유영모의 생각과 믿음*, 문화일보사, 1995.
- 3 -----,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 두레, 2001.
- 4 오정숙, *다석유영모의한국적 기독교*, 미스바, 2000.
- 5 유영모, *다석유영모어록*, 두레, 2002.
- 6 -----, *다석강의*, 다석학회 엮음, 현암사, 2006.
- 7 이기상, “태양을 꺼라! 존재 중심의 사유로부터의 해방”, *다석유영모의동양사상과신학*, 김흥호 이정배 편, 솔 출판사, 2002.
- 8 이정배, “다석유영모의동양적 기독교 이해와 얼 기독교론”, *다석유영모의동양사상과신학*, 김흥호 이정배 편, 솔 출판사, 2002.
- 9 정양모, *나는 다석을 이렇게 본다*, 두레, 2009.
- 10 -----, “다석유영모선생의 신앙”, *다석유영모의동양사상과신학*, 김흥호 이정배 편, 솔 출판사, 2002.
- 11 최인식, “다석 류영모의 영과 몸의 신학”, *ACTS신학과선교* 제30집 (2004. 12.)
- 12 Lossky, Vladimir. *TheMysticalTheologyofTheEasternChurch*. Cambridge&London: James Clarke & Co. LTD, 1968.
- 13 Neville, Robert C.
- 14 -----, *BehindTheMasksofGod:AnEssaytowardComparativeTheology*. Albany, N.Y.: SUNY Press, 1991.
- 15 -----, *EternityandTime'sFlow*.SunySeriesinPhilosophy. Albany, N.Y.: SUNY Press, 1993.
- 16 -----, *GodtheCreator:OntheTranscendenceandPresenceofGod*.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2.
- 17 -----, *NormativeCultures*.AxiologyofThinking.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 18 -----, *Soldier, Sage, Saint*.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1978.
- 19 Schneiders, Sandra. “Theology and Spirituality: Strangers, Rivals, or Partners?” *Horizons*13,no.2(Fall),1986.
- 20 Sheldrake, Philip. *SpiritualityandTheology:ChristianLivingandtheDoctrineofGod*.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9.
- 21 Streng, Frederick J. *Emptiness:ASTudyinReligiousMeaning*. Abingdon Press, 1967.



기독교대학생의 성인애착과 하나님 애착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도 S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승범

1. . 서론: 연구의 필요성

성인애착은 성인애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생초기의 애착 경험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애착이론의 창시자인 Bowlby(1969, 1973)는 생애초기 영아와 주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 즉 애착형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을 통해 획득된 애착이, 이후 내적작동모델 (Internal Working Model)의 형태로 내재화되어 전 생애에 걸쳐 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정옥분, 정순화, 그리고 황현주(2012)도 Bowlby가 설명한 이 내적작동모델을 유아와 애착 대상자와의 관계 경험에 대한 유아의 기억된 경험으로 즉, 자기표상이나 대상표상이 아닌 관계의 성질이 내재화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애착경험은 일종의 원형(Prototype)으로, 유아의 무의식에 남아 전 생애에 걸쳐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의 기초로 작용된다는 것이다(Holmes, 2005).

Bowlby의 애착이론은 Ainsworth와 그의 동료들(1978)이 개발한 ‘낮선 상황 실험<sup>1)</sup>’을 통해 경험적으로 증명 될 수 있었다. 이 실험을 통해 그들은 아동의 애착행동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안정형, 불안-회피형, 그리고 불안-양가형 애착. 보울비는 생애 초기 획득된 애착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특정 행동이나 경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Bowlby, 2014). 그가 주장한 ‘내적작동모델’의 개념은 이러한 설명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준다. 즉,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된 관계의 질은 향후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의 초석이 되어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의 이론은 한 개인의 사회성 발달을 ‘과정’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성인의 애착유형을 측정하는 성인애착척도의 개발은 Bowlby가 주장한 전 생애를 관통하는 ‘내적 작동모델’의 실효성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해 주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인애착 유형과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획득된 애착 유형 사이에서 상호관계가 발견된다.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기 애착의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질문지 형식으로 된 척도를 개발하였고 성인 애착을 안정형, 불안-회피형, 그리고 불안-저항형 애착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 한 개인의 성인 애착 유형이 Ainsworth가 제안한 아동애착 유형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장희숙(1997)의 연구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작

1) 낮선 상황 실험은 주 양육자를 향한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 실험은 놀이방에 들어간 엄마가 아이를 실험자에게 맡기고 3분간 방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아이와 재회한 후, 엄마와 실험자 모두 아이만 홀로 남겨 둔 채 3분간 방을 떠났다가 엄마가 다시 돌아와 아이와 재회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의 반응을 녹화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모델이 간세대적으로도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애착유형이 자신의 자녀세대에게까지도 전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생애초기 형성된 애착이 내적작동모델의 형태로 지속되면서 성인기에도 그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애착이론은 최근 종교심리학과 영성발달의 영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애착이론은 한 개인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원과 성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personal)이고 대인관계적(interpersonal) 속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획득된 애착경험이 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은 내재화된 애착이 하나님 애착, 즉 인격적이고 대인관계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우선적으로 성인애착 유형이 하나님애착 유형과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 2. . 이론적 근거: Kirkpatrick의 일치가설

Minor(2007)가 지적하는 것처럼, 애착관계에 대한 논의는 애착 대상과의 접촉과 반응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신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애착 대상처럼 관계의 형태나 응답이 목격될 수도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하나님을 애착관계의 대상으로 규정하길 머뭇거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애착대상자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Ainthworth(1985)가 제시한 애착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애착대상자에게 근접(proximity)을 유지하는 것, (2) 애착대상자를 행동을 촉진시키는 안정된 기지(a secure base)로 이해하는 것, (3) 애착대상자를 안전한 피난(a haven of safety)처로 인식하는 것, (4) 애착대상자에게 분리되었을 때 분리불안(separation anxiety)을 경험하는 것. 실제로 하나님 애착 연구의 선구자인 Kirkpatrick(1992)은 하나님을 이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애착대상자로 간주하고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애착관계로 규정하였다.

하나님 애착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하나님 애착을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의 하나님 애착 역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작동모델의 지속적인 작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성인애착 유형이 하나님애착 유형과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관계 발전의 과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Kirkpatrick(1992)은 이러한 관계 발전의 과정을 일치가설(Correspondence Hypothesis)이라고 명명하였다.

일치가설은 주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획득된 애착경험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가설이다. 일치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애착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있다. Mcdonald, Beck, Allison, 그리고 Norsworthy(2005)의 연구는 생애 초기 주양육자와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애착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그들은 부모와의 애착과 하나님애착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부모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측정도구의 하위 요소인 부모의 과보호가 하나님애착 측정도구의 하위요소인 회피유형과 불안유형 모두에서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Dickie, Ajega, Kobylak, 그리고 Nixon(2008)은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자아인식, 자아존중감, 그리고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특별히, 여학생

들의 경우, 그들이 지각한 부모의 부드러운 돌봄(nurturance)이 자신들의 자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다시 하나님인식, 즉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라는 인식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2009)은 부모로부터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안정애착을 경험한 학생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경험하는 관계의 질이 그들의 하나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연구들 가운데 성인애착 유형과 하나님애착 유형이 비슷하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들도 있다. Kirkpatrick과 Shaver(1992)는 불안정 애착 유형에 속한 성인보다 안정 애착 유형에 속한 성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스럽고, 언제나 접근가능하며, 덜 통제적인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TenElshof와 Furrow(2000)는 안정형 성인 애착이 신앙성장의 두 측면, 즉 수직적인 신앙(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신앙(인간관계)과 정적으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Rowatt와 Kirkpatrick(2002)도 성인들의 불안애착은 불안정 하나님 애착과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고, 불안-회피 애착도 정적으로 회피형 하나님 애착과 정적으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생애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획득되어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되는 내적작동모델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외의 경우 한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발전을 애착 형성의 관점에서 보려는 시도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하나님 애착에 대한 개념이 소개된 것은 2010년을 넘어서면서부터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직까지 애착이론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이향숙 & 전요섭, 2010; 이향숙, 2011). 국내에서 실시된 경험 연구로는 이혜진과 유은정(2006), 이보라와 전요섭(2014)의 연구가 있다. 이혜진과 유은정(200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애착불안이 하나님표상의 하위요소인 소속감(임재, 도전, 소속감), 승인감(용납, 긍휼, 승인감), 통제감(영향력, 섭리, 통제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그들은 양적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성인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보라와 전요섭(2014)의 연구에서도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연구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성인애착유형과 하나님애착경험과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 3. . 연구방법

#### 가. .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S대학에 재학 중인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대학생 2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편의표집방식으로 선정되었고 설문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담당교수의 동의를 얻어 수업 이후에 설문에 참여하기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나. . 연구도구

##### 1) . 성인애착척도

성인애착의 질적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 그리고 Brennan(2000)이 개발한 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Revised(ECR-R)를 한국어로 번역한 ECRR-K를 사용하였다. 김성현(2002)은 ECR-R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확장적 요인분석을 통해 설문지가 한국 대학생들에게도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검사에서 애착의 개인차는 '불안(anxiety)'과 '회피(avoidance)'의 두 가지 차원으로 측정되는데, 애착불안 18문항, 애착회피 16문항의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개의 리커드 척도가 사용되었다(1=전혀 그렇지 않다; 7=아주 그렇다). ECRR-K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0.9에 근접한 높은 값을 보였다(불안 .89, 회피 .85).

<표1> 성인애착척도 하위변인

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연산문항
성인애착-회피	18	2,6,8,10,12,13,14,17,20,21,22,23,24,25,26,31,36	15
성인애착-불안	18	1,4,7,9,11,16,19,27,28,30,34	3,5,18,29,32,33,35

애착불안은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불안의 정도를 나타내고 애착회피는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과 의존성으로 인한 독립성 침해의 정도를 나타낸다(이주혜 & 조영아, 2015). 일반적으로 두 차원이 모두 높게 나타날 경우 불안정한 애착으로 규정한다. ECRR-K는 대인관계에서 불안과 회피의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4가지 애착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회피와 불안이 모두 평균보다 낮으면 안정형(secure), 회피는 평균보다 낮고 불안은 높으면 집착형(preoccupied), 회피는 평균보다 높고 불안은 낮으면 거부형(dismissing), 회피와 애착이 모두 평균보다 높으면 두려움형(fearful)으로 분류한다.

## 2) . 하나님애착척도

본 연구에서 하나님애착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척도는 Beck과 Mcdonald(2004)가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Brennan, Clark, & Shaver, 1998)에 기초하여 개발한 Attachment to God Inventory(AGI)이다. AGI는 차원모형(dimension model)으로 총 2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피(Avoidance)영역과 불안(Anxiety)영역, 두 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소에 14개의 문항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문항에 응답하기 위해 7개의 리커드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각 하위요소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불안 요소가 .82 그리고 회피 요소가 .8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2> 하나님 애착척도 하위변인

변인	문항수	문항번호	연산문항
하나님애착-회피	14	2,6,10,12,14,16,20,24	4,8,18,22,26,28
하나님애착-불안	14	1,3,5,7,9,11,15,17,19,21,23,25,27	13

## 3) . 신앙행위척도

신앙행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척도는 Sherr, Stamey, & Garland(2009)가 개발한 Christian

Faith Practices Scale(CFPS)이다. 그들은 “신앙은 하나님을 누구신지와 그 분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 적절하고 의도적으로 반응하는 행위”라는 Dykstra(1986)의 정의에 기초하여 척도를 만들었다. CFPS는 7개의 리커드 척도를 이용하여 13개의 신앙행동 또는 행위들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를 표시하도록 만들어졌다. CFPS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86으로 연구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는 측정된 결과, 성인애착-회피 0.71, 성인애착-불안 0.63, 하나님애착-회피 0.85, 하나님애착-불안 0.82, 신앙행동척도 0.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연구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인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ANOVA를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ukey를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4. . 연구결과

#### 가.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3 참조). 총 279명 가운데 여학생은 185명(66.3%), 남학생이 94명(33.7%)이었고, 전공에 따라서는 신학과와 기독교교육과를 포함하는 신학계열에 속해 있는 학생이 149명(54.4%)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보육학과, 어문계열 등을 포함하는 비신학계열에 속해 있는 학생이 125명(45.6%)으로 나타났다. 신앙입문에 대해서는, 모태신앙이 7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때가 15.4%, 중고등학교 때가 11.1%, 대학에 와서가 1.8%로 나타났다. 부모님 신앙 여부별로는 부모는 모두 믿는 학생이 5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모두 안 믿음 21.9%, 어머니만 믿음 19.0%, 아버지만 믿음 1.4% 순이었다. 회심 경험별로는 회심 경험이 있는 학생이 62.4%, 회심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9.2%,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학생이 29.4% 이었다. 예배 참석에 대해서는 월 5-9회 36.2%가 가장 많았으며 월10회 이상 35.1%, 월 1-4회 25.1%, 거의 안함 3.8% 순이었다.

<표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94	33.7
	여자	185	66.3
전공	신학계열	149	54.4

	비신학계열	125	45.6
	모태신앙	200	71.7
신앙입문	초등학교 때	43	15.4
	중고등학생 때	31	11.1
	대학에 와서	5	1.8
	모두 믿지 않음	61	21.9
	어머니만 믿음	53	19.0
신앙여부	아버지만 믿음	4	1.4
	모두 믿음	161	57.7
회심경험	있다	174	62.4
	없다	23	8.2
	모르겠다	80	29.4
	거의 안함	8	2.9
예배참석 빈도	월 1-4회	72	25.8
	월 5-9회	101	36.2
	월 10회 이상	98	35.1

#### 나. . 응답자의 성인애착유형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성인애착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안정형(secure)에 속하는 대학생이 29.3%로 가장 많았고, 두려움형(fearful)이 27.1%, 집착형(preoccupied)이 22.0%, 거부형(dismissing)이 21.6% 순으로 나타났다.

#### 다. . 성인애착과 하나님애착의 상관관계

성인애착유형과 하나님애착 유형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표5>는 각 척도의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ECRR-K의 성인애착-불안은 AGI의 하나님애착-불안과 정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r=.489, p<.01$ ), 성인애착-회피도 하나님애착-회피 사이에서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r=.171, p<.01$ ). 즉, 성인애착-불안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애착-불안도 높아지고, 성인애착-회피가 높아질수록 하나님 애착-회피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 유의도와 함께 두 변인 간 실제적 차이(practical significance)를 밝히기 위해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살펴본 결과, 성인애착-불안과 하나님애착-불안 사이에서는 효과크기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r^2=.24$ ), 성인애착-회피와 하나님애착-회피 사이에서는 효과크기의 값이 낮게 나왔다( $r^2=.03$ ).

<표4> 성인애착과 하나님애착의 상관관계

	<i>M</i>	<i>SD</i>	<i>r</i>	<i>p</i>	<i>r</i> <sup>2</sup>
성인애착-불안	3.53	.70			
하나님애착-불안	3.41	.92	.489**	.000	0.24
하나님애착-회피	3.07	.93	.204**	.001	0.04
성인애착-회피	3.93	.35			
하나님애착-불안	3.41	.92	-.012	.844	
하나님애착-회피	3.07	.93	.171**	.005	0.03

라. . 신앙행위척도와 하나님애착의 관계

하나님애착과 신앙행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하나님애착-불안과 신앙행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고, 하나님애착-회피와 신앙행위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발견되었다( $r = -.610, p < .01$ ). 애착이론에서 회피는 일반적으로 타인표상 차원과 관계가 있는 요소로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애착-회피,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이 증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신앙행위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인 간 실제적 차이를 발견하기 위한 효과크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2 = .37$ ).

<표5> 신앙행위척도와 하나님애착의 상관관계 분석

	<i>M</i>	<i>SD</i>	<i>r</i>	<i>p</i>	<i>r</i> <sup>2</sup>
신앙행위척도	4.85	.96			
하나님애착-회피	3.07	.93	-.610**	.000	0.37

마.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하나님애착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성별, 전공, 회심경험등과 같은 일반적 특성과 하나님애착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다. 성별에 따른 하나님애착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 실시한 t-검정의 결과, 하나님애착-불안과 하나님애착-회피 두 하위요소 모두 성별에 의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하나님애착-불안이 더 높았으며 하나님애착-회피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Cohen(1988)이 제시한 효과크기(effect size)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불안유형과 회피모형 모두 아주 낮은 효과크기가 발견되었다(불안유형,  $d < .02$ ; 회피유형,  $d < .01$ ).

<표6> 성별에 따른 하나님애착 분석

	남자		여자		<i>t</i>	<i>p</i>	<i>d</i>
	<i>M</i>	<i>SD</i>	<i>M</i>	<i>SD</i>			
하나님애착-불안	3.20	.92	3.52	.92	-2.69	.007	.02
하나님애착-회피	3.23	.93	2.99	.92	2.00	.046	.01

전공에 따른 하나님애착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하나님애착-회피에서 전공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비신학계열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신학계열에 속해 있는 학생들보다 하나님애착-회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실제적 차이를 발견하기 위한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 낮은 효과크기가 나왔다( $d < .02$ ).

<표7> 전공에 따른 하나님애착 분석

	신학계열		비신학계열		<i>t</i>	<i>p</i>	<i>d</i>
	M	SD	M	SD	t	p	d
하나님애착-회피	2.80	.82	3.37	.096	-5.191	.000	.02

회심여부에 따른 하나님애착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하나님애착-회피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F_{(2,273)}=23.384, p=.000$ ). 하지만,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 낮은 효과크기가 발견되었다( $\eta^2=.14$ ).

<표8> 회심여부에 따른 하나님 애착 분석

	Df	SS	MS	<i>F</i>	<i>p</i>	$\eta^2$
하나님애착-회피						
집단-간	2	34.668	17.334	23.384	.000	0.14
집단-내	273	202.365	.741			

집단 간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회심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룹과 회심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 그룹 사이에서 그리고 회심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룹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 그룹 사이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회심경험이 없는 학생 그룹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 그룹의 하나님애착-회피 지수가 회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9> 회심경험유무에 따른 하나님애착에 대한 사후검증(Tukey)

	회심경험 있음(A)		회심경험 없음(B)		잘 모름(C)		사후검증
	M	SD	M	SD	M	SD	
하나님애착-회피	2.79	.77	3.56	1.13	3.52	.94	B,C>A

예배참석빈도에 따른 하나님애착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하나님애착-불안과 하나님애착-회피 두 하위요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불안요소,  $F_{(3,268)}=3.388, p=.019$ ); 회피요인 ( $F_{(3,272)}=12.646, p=.000$ ).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 불안요소는 낮은 효과크기 값이 그리고 회피요소는 큰 효과크기 값이 계산되었다(불안요소,  $\eta^2=.03$ ; 회피요소,  $\eta^2=.12$ ).

<표10> 예배참석빈도에 따른 하나님애착 분석

	Df	SS	MS	<i>F</i>	<i>p</i>	$\eta^2$
하나님애착-불안	집단-간	3	8.492	2.381	3.388	0.19
	집단-내	269	224.761	.836		
하나님애착-회피	집단-간	3	29.015	9.672	12.646	.000
	집단-내	272	208.018	.765		

구체적인 집단간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12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즉, 하나님애착-불안에 대해서는, 월5-9회 예배에 참석한다고 응답한 학생 그룹이 월 1-4회 예배에 참석한다고 응답한 학생그룹보다 하나님애착-불안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하나님애착-회피에 대해서는, 예

배에 더 많이 참석하는 학생들이 예배에 거의 참석을 안 하거나 적게 참석하는 학생들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예배참석빈도에 따른 하나님애착에 대한 사후검증(Tukey)

	거의안함(A)		1-4회(B)		5-9회(C)		10회 이상(D)		사후검증
	M	SD	M	SD	M	SD	M	SD	
하나님애착-불안	3.28	.78	3.23	.89	3.64	.91	3.31	.93	C>B
하나님애착-회피	4.09	.51	3.42	1.01	3.06	.83	2.72	.82	A>C,D, B>C,D, C>D

## 5. .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하나님애착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독교인 대학생 279명에게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성인애착의 불안유형과 하나님애착의 불안유형 사이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인애착의 회피유형과 하나님애착의 회피유형 사이에서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말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불안애착(anxiety)이 높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지 않는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친밀감을 유지하기 어려운 애착회피(avoidance)가 높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애착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밀감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애착 유형과 하나님애착 유형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정적인 상관관계는 Kirkpatrick(1992)이 제시한 일치가설, 즉 아동의 부모 또는 주양육자와 성인애착의 대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애착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그의 가설을 지지한다. 뿐만 아니라, 성인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동일하게 하나님애착의 내적 작동모델로 작용한다는 그의 가설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Kirkpatrick, 1998, Kirkpatrick & Shaver, 1992, TenElshof & Furrow, 2000, 이보라 & 전요섭, 2014).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관계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남아 지속적으로 성인기의 대인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이론의 발달심리학적 관점은 인간의 사회성 그리고 특별히 영성발달을 ‘과정’과 ‘관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접근을 제공해 준다.

둘째, 하나님애착-회피유형과 신앙행위척도 사이에서 부적 상관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신앙행위가 증가하고, 반대로 신앙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밀감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ssler(2001)는 기독교영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우정을 더해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영성훈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키는 은혜의 수단이다. Willard(1988)도 고독, 침묵, 금식, 자선, 학습, 예배, 기도 등과 같은 기독교 전통 가운데 존재해 오던 다양한 영성훈련방법들을 소개하면서 영성훈련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의 영혼에 전달되는 통상적인 통로라고 설명한다. 믿음에 반응에 기초한 신앙행위는 그것이 목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성장,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된다. 하나님애착-회피 유형과 신앙행위의 부적 상관이라는 본 연구의 발견은 의미 있는 신앙행위를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이 더 깊어진다는 관계적 기독교영성 이해와 영성발달

을 위해 필요한 영성훈련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도와준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전공, 회심경험 유무, 예배참석빈도와 같은 요인들은 하나님애착 유형가운데 회피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신학 또는 기독교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일반 전공을 가진 학생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친밀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학계열, M=2.78; 비신학계열, M=3.37), 회심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회심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학생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친밀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회심경험 유, M=2.79; 회심경험 무, M=3.56; 모르겠음, M=3.52), 교회출석빈도가 높은 학생들이 거의 교회에 가지 않거나 교회출석빈도가 낮은 학생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친밀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거의 안 감, M=4.09; 1-4회, M=3.42; 5-9회, M=3.06; 10회 이상, M=2.72). 이러한 결과들은 신학을 공부하려는 소명 의식, 분명하게 인식되는 회심경험, 지속적인 예배 참석이 연구 참여자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독교인의 애착연구는 학습자의 신앙성숙과 발달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교육에 다음과 같은 공헌을 할 수 있다.

첫째, 생애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을 통해 영아는 애착을 형성하고, 이 때 형성된 애착이 내적 작동모델로 남아 전 생애에 걸쳐 대인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이론의 강조는 다음세대에게 신앙 전수의 책임을 가진 교회가 영아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시사해준다. 교회는 영유아 부서 예배 또는 주중 또는 주말 프로그램을 개발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건강한 애착(관계)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회에 출석하는 영유아들을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동안 단순히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성도로 인식해야 하고 그들이 건강한 관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별히, 어머니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자녀를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서 양육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자녀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건강한 애착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회 내에 영유아 전문가 양성과 부모들을 위한 교육,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애착이론이 애착의 지속적인 영향을 강조하지만 이것이 심리학적인 운명론이 될 수는 없다. 생애 초기 획득한 애착경험이 이후의 발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후에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환경과 관계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생애초기 불안정 애착을 획득한 아동이라도 성장하면서 새로운 환경 경험과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 안정애착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앙발달적 측면에서도, 부모 또는 주 양육자와와의 관계를 통해 얻게 된 부정적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반영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신앙체험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또는 재구조화 할 수 있게 한다(이혜진 & 유은정, 2006).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롬 6:8-9; 갈 2:20).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체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되는 방편이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교육 지도자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신앙체험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셋째, 교사의 다양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상담가 또는 멘토로서의 역할이다. 상담가로서 그리고 멘토로서 교사는 무엇보다 사람이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인간의 발달을 과정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애착이론은 인간의 사회적 발달뿐만 아니라 영성발달의 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상담가로서의 교사는 또한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익숙해야 한다. TenElshof와 Furrow(2000)는 대학생들이 멘토와의 지속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통해 학생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신앙성장과 발달의 궁극적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지만 기독교교육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교사의 동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교회와 기독교교육가들은 교사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가와 멘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 6. . 결론

기독교교육학자인 Issler(2001)는 “하나님과의 성숙한 우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데 필요한 감정적, 사회적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착이론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인관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대인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성장에 있어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주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인애착 유형과 하나님애착 유형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성인애착 유형과 하나님애착 유형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Kirkpatrick이 제시한 일치가설에 부합한다. 또한, 하나님애착-회피와 신앙행위척도 사이에 부적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는 결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밀감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을수록 신앙행위를 지속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애착유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개인의 신앙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사회관계적 그리고 영성 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사용된 표본은 한 지역에 기반을 둔 기독교 사립대학 한 학교에서 추출되었기 때문에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통제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대학에서 표본을 추출해 성인애착과 하나님애착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양적연구 방법 이외에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을 좀 더 세밀하게 평가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현 (2004). **친밀관계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신승범 (2012). 부모의 관계적 기독교영성과 그들의 자녀양육방식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30, 317-343.
- 이보라, 전요섭 (2014). 기독교청년의 성인애착유형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기독교 상담 방안. **성경과 신학**, 70, 217-240.
- 이주혜, 조영아 (2014).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579-594.
- 이향숙, 전요섭 (2010). 성인애착행동과 하나님 애착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고찰. **신앙과 학문**, 15(3), 229-264.
- 이혜진 (2002). 애착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학생생활상담**, 7, 23-43
- 이혜진, 유은정 (2006). 기독교여대생의 성인애착유형과 하나님표상과의 관계. **복음과 상담**, 7, 267-301.
- 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12).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 장휘숙 (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10(1), 80-97.
- Ainsworth, M. D. (1985). Attachment across the lifespan.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61, 792-812.
- Ainsworth, M. D.,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eck, R., & McDonald, A. (2004). Attachment to God: The attachment to God inventory, tests of working model correspondence, and an exploration of faith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2(2), 92-103.
- Bowlby, J. (1969). *Attached and loss, Volume 1: Attachment*. New York, NY: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ed and loss, Volume 2: Separation*. New York, NY: Basic Books.
- Bowlby, J. (2014). **존 볼비의 안전기지**. 김수임, 강예리, 강민철 역. 서울: 학지사.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 Cohen, J. (199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Erlbaum.
- Dickie, J. R., Ajega, L. V., Kobylak, J. R., & Nixon, K. M. (2006). Mother, father, and self: Sources of young adults' God concep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5(1), 57-71.
- Dykstra, C. (1990). *Growing in the life of faith: Education and Christian practices*. Louisville: Geneva Press.
- Willard, D. (1993). **영성훈련**. 엄성욱 역. 서울: 은성.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78, 350-365.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olmes, J. (2005). *존 불비와 애착이론*. 이경숙 역. 서울: 학지사.
- Issler, K. (2004). *주님과 거닐다*. 양혜원 역. 서울: IVP.
- Kirkpatrick, L. A. (1992). An attachment-theory approach to the psychology of relig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1), 3-28.
- Kirkpatrick, L. A. (1998). God as a substitute attachment figure: A longitudinal study of adult attachment style and religious change i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961-973.
- Kirkpatrick, L. A., & Shaver, P. R. (1992). An attachment-theoretical approach to romantic love and religious belie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3), 266-275.
- McDonald, A., Beck, R., Allison, S., & Norsworthy, L. (2005). Attachment to God and parents: Testing the correspondence vs. compensation hypothesi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4(1), 21-28.
- Miner, M. H. (2007). Back to the basics in attachment to God: Revisiting theory in light of theolog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5(2), 112-122.
- Rowatt, W. C., & Kirkpatrick, L. A. (2002). Two dimensions of attachment to God and their relationships to affect, religiosity, and personality construc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 637-651.
- Sherr, M., Stanmey, J., & Garland, D. E. (2009). Empowering faith practices: A validation study of the Christian Faith Practices Scale. *Journal of Family and Community Ministries*, 23(1), 27-36.
- Shin, H. (2009). Asian-American college students' parental attachment and their relationship with God. *Christian Education Journal*, 6(2), 353-375.
- TenElshof, J. K., Furrow, J. L. (2000). The role of secure attachment in predicting spiritual maturity of students at a conservative seminar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8(2), 99-108.

## 기독교신학연구소 소개 및 후원안내

기독교신학연구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문적 열정으로 회원 상호간의 연구를 공유하며, 국내·외 관련학계 및 일반학계와의 학문교류에 힘씀으로 한국교회가 사회에 봉사하고 인류발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목회, 선교와 기독교신학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학술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학진등재, 어학강좌, 번역사업, 신학자 논문발표, 선교교과서 발간, 각종 세미나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적·실천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선교포럼, 선교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이러한 활동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귀 교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욱더 활동들을 보완하고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독교신학연구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 국민은행 238501-04-257200 윤철원(기독교신학연구소)